

윤성광의 작업은 “감정을 눌러두고 살아온 시간들” 에서 출발한다. 이는 개인의 심리 서사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사회가 요구해온 규범과 자기 통제의 구조 속에서 형성된 감정의 압축 상태를 시각화하는 시도이다. 사회적 질서 안에서 삼켜야 했던 말들, 억눌린 충동, 직접적으로 표출될 수 없었던 감정들은 윤성광의 화면 안에서 더 이상 추상적인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그것들은 여러 겹의 색채와 유머, 과장된 형태를 통해 몬스터의 얼굴로 증류된다.

이러한 전략은 표현주의(Expressionism) 이후 감정의 직접적 발화를 시도해온 미술사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제임스 앙소르(James Ensor)와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의 작업에서 보이듯, 얼굴과 가면은 억압된 내면과 사회적 긴장을 드러내는 장치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윤성광의 몬스터 역시 외형적으로는 유희적이고 만화적인 언어를 차용하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정서와 불안, 자기 검열의 흔적이 축적되어 있다.

각각의 초상은 독립된 개체로 기능하지만, 하나의 프레임 안에 모였을 때 이들은 단순한 인물 군상이 아니라 집단적 감정의 지도(emotional cartography)를 형성한다. 이는 개인의 감정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사회적 환경과 집단적 경험 속에서 공유되고 재생산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러한 접근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한 규율 사회 속 주체 형성 과정, 그리고 사라 아메드(Sara Ahmed)가 분석한 감정의 사회적 순환 구조와도 연결된다.

이 전시는 위와 같은 감정의 지도를 〈졸업앨범 _Yearbook〉이라는 이름으로 제시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졸업앨범의 서사는 성장, 이별,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기록하는 장치이다. 윤성광의 졸업앨범 역시 이 서사를 따르지만, 여기서 성장하는 것은 인물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이며, 떠나는 것은 학교가 아니라 말하지 못한 과거의 자신이다. 이는 기억과 정체성을 기록하는 매체로서의 사진과 아카이브 개념을 전복하는 시도로, 알랭 레네(Alain Resnais)의 기억 서사나 현대 미술에서 아카이브를 재구성하는 전략들과도 맥을 같이 한다.

27개의 얼굴은 서로 닮은 듯 다르며,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않은 채 각자의 입을 벌리고 서 있다. 그 입은 비명을 지르는 듯 보이기도 하고, 웃음을 삼키는 순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관객이 그 입이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상상하는 순간, 이미 그 몬스터들과의 침묵의 대화는 시작된다. 색과 형태의 유쾌함은 관객을 가장 먼저 끌어들이지만,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층층이 쌓인 감정의 밀도이다.

윤성광의 〈졸업앨범〉은 결국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한 장쯤 품고 있는 ‘감정의 졸업앨범’이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삼켜야 했던 순간들, 혹은 너무 솔직해서 숨겨두어야 했던 표정들. 이 전시는 그것들을 비로소 꺼내어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집단적 고백의 장이 된다.